



# 북한 기도회

2023년 07월





기도제목 1.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고 그 동안 막혀 있었던 사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국경 봉쇄를 완화하고 있고, 정식으로 국경을 여는 일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북한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교 현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에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전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2. 강제 북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구금시설이 확장되었고, 수백에서 최대 2천여명의 북한 사람들이 확장된 수감시설에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해있다고 관련 기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미루어 볼 때,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된다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별히, 강제북송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유무 및 현지 교회나 한인 선교사와의 접촉 여부가 이들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탈북자 출신 신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이 하루 속히 중단되고, 현재 붙잡혀 있는 이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시설이 대폭 확대된 중국 화룽시 변방대 모습 (위: 2019년 / 아래: 2022년)>



기도제목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RFA는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예배 드리던 기독교 지하교회 교인들이 4월 마지막 주일 새벽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일 새벽마다 소수의 사람이 모임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심어 놓은 정보원에 의해 예배 모임이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종교 서적, 영상물, 사진, 그림 등을 보거나 소지한 경우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을, 유입 또는 제작과 배포의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이라는 매우 극심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가 희생당하는 북녘의 성도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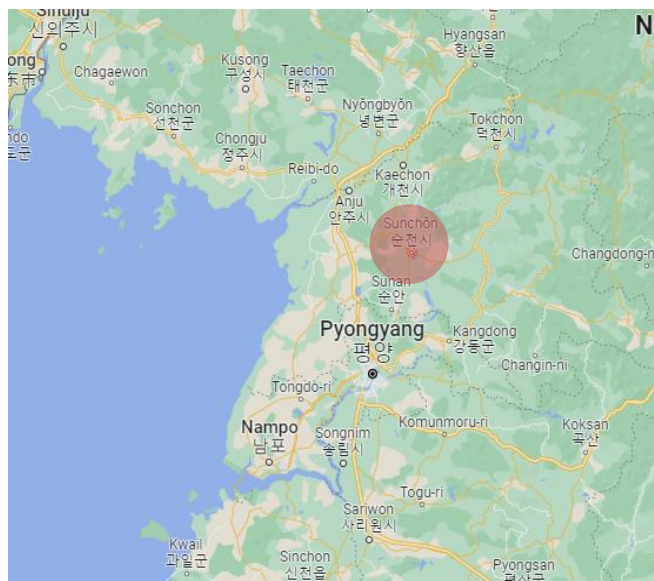
제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종교활동 관련 처벌 규정>



<사건 발생지인 평남 순천시의 위치>



기도제목 4.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들의 석방과 송환되는 해외 북한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에 남아있었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팬데믹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외부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특별히 선교사나 현지 기독교인과의 접촉을 통해 복음을 받아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앙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본국으로 귀환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기도제목 5. 탈북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가 22년도 통일부 통계 기준 3만 4천여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탈북민 중 상당수가 탈북 과정에서 접한 선교사나 현장 사역자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남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입국 이후 신앙을 지키며 교회생활을 하는 탈북민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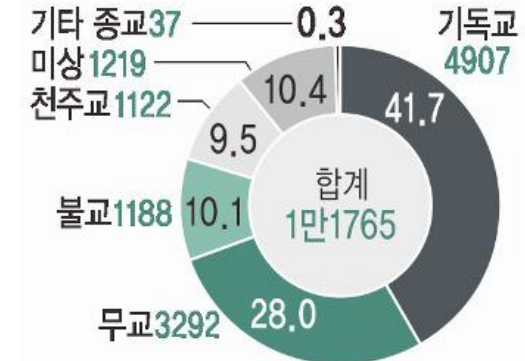
탈북민 복음화에 한국 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전국 탈북민교회 현황 (2023. 5월)

한국에는 현재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져 있고, 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효과적인 북한선교는 바로 탈북민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종교 현황 (단위: 명,%)



〈자료: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

기도제목 6.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하였는데, 조만간 2차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15일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의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화를 존중하며 이를 증진하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2023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 |    |        |  |
|----|--------|--|
| 1  | 1월 1일  | 북,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 발사                             |
| 2  | 2월 18일 | 북,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
| 3  | 2월 20일 | 북, 평안북도 속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                           |
| 4  | 2월 23일 | 북, 함경북도 김책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락순항미사일 '화성-2형' 발사 주장                          |
| 5  | 3월 9일  | 북,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발사                              |
| 6  | 3월 12일 | 북, 함경남도 신포 인근 잠수함에서 전락순항미사일(SLBM) 2발 발사                              |
| 7  | 3월 14일 | 북,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                           |
| 8  | 3월 16일 | 북,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 발사                    |
| 9  | 3월 19일 | 북,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 발사                          |
| 10 | 3월 22일 | 북,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4발 발사                                    |
| 11 | 3월 27일 | 북,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                           |
| 12 | 4월 13일 | 북,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종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 발사<br>(교체연료 주전 방식 실험 미사일 가능성 제기) |

자료: 합참, 그래픽=강성기기자 NOOUTNEWS





기도제목 7.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 5월 6일 서해를 통해 탈북한 일가족은 현재 "북한의 일부 마을에서 인육 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BBC코리아 역시 취재를 통해 최근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의 경제난은 북한의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해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산간 오지에 추방당하였거나 나쁜 배경성분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8. 북한의 청년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청년층을 겨냥하여 각종 사상문화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투까지 규제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는, 그렇지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현상만을 억압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이지도,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며 한류 문화 등을 매개체로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다고 여러 탈북 청년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회의 지도층으로 부상할 새로운 세대를 통해 북한 사회 전반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억압받는 청년들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도록, 이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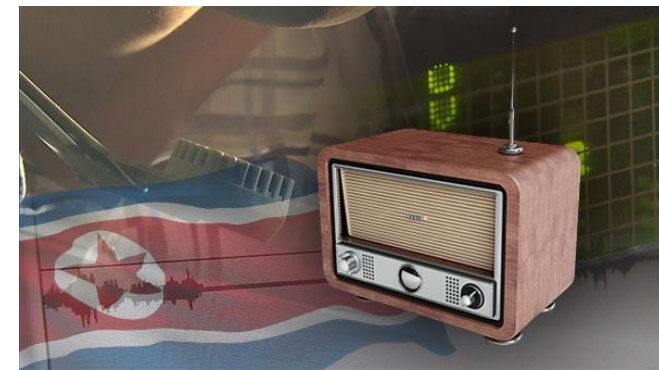


기도제목 9.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